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유미옥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i Ok Yu
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K지역의 2개 대학 2학년부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3.86점, 긍정적 사고 정도는 3.52점,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4.68점이었다. 각 변수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지지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사고에서는 목표추구가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가 4.92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사고($r=.48, p<.001$)와 주관적 행복감($r=.49,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사고는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9, p<.001$)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targeted to 140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2nd, to 4th grade in two colleges in K area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3, 2019, to July 9,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support was 3.86 points, positive thinking was 3.52 points, subjective happiness was 4.68 points. Among the sub-domains of each variable, emotional support was the highest with 3.92 points in social support, and goal pursuit was the highest with 3.69 points in positive thinking. In addition, the highest score among the subjective happiness items was 'generally happy' with 4.92 points. The social support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thinking($r=.48, p<.001$) and subjective happiness($r=.49, p<.001$). In addition, positive thinking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r=.69, p<.001$) with subjective happin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can improve social support and positive thinking so as to improv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Subjective Happiness, Nursing Students, Department adaptation

*Corresponding Author : Mi Ok Yu(Songho Univ.)

email: miok732000@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0,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January 4,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 진로를 선택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로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1]. 특히 부모나 교사 등 주변권유에 의해 입학한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중한 교육량, 임상실습과 같은 교육과정의 엄격함으로 인해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이 저하되어 학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간호사가 인식하는 행복감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한 인간중심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3],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이 저하되면 간호현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대상자의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자신의 삶의 질과 향후 간호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삶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긍정적 감정 상태로[4],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표현된다[5].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목표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 간호제공자로서 긍정적인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행복감이 저하되게 된다[6]. 이러한 이유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등이 보고된 바 있다[2, 7-11]. 특히,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사고는 주관적 행복감과 연구는 미흡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12],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학과생활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8]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수 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9,11]. Hobfoll[13]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

황에 직면하더라도 손실된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대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긍정적 사고는 개인과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지적 태도 및 대처 방식으로 행복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16]. Seligman과 Csikszentmihalyi[17]는 행복을 인간의 긍정적 인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Heimberg, Acerra와 Holstein[18]은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가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긍정적 사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지역에 소재하는 S대학과 M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전공과목이 진행되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이점으로 익명성 보장, 연구 도중 중단 가능, 소정의 선물 증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19]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측검정일 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상관관계에서 중간 크기인 .30, 검정력 .90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12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48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40부(94.6%)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 지지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5 문항의 5점 척도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였으며, Je[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94, Jeong과 Park[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6이었다.

2.3.2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Kim 등[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주관적 만족, 목표추구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의 5점 척도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3이었으며, Kim[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84, Moon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2.3.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2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 .86이었으며, Han과 Kim[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하였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으로 여자가 117명(83.6%), 남자가 23명(16.4%)이었다. 연령은 19-29세 사이가 115명(82.1%), 40세 이상 21명(15.0%)의 순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 49명(35.0%), 3학년 48명(34.3%), 4학년 43명(30.7%)의 순이었다. 종교는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72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순이었다.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48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주변의 권유 42명(30.0%), 취업률 31명(22.1%), 전문 직업 19명(13.6%)의 순이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65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매우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0)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23(16.4)
	Female	117(83.6)
Age	19-29	115(82.1)
	30-39	4(2.9)
	≥40	21(15.0)
Grade	2 grade	49(35.0)
	3 grade	48(34.3)
	4 grad	43(30.7)
Religion	Christian	32(22.9)
	Catholic	19(13.6)
	Buddhism	17(12.1)
	No	72(51.4)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Employment rate	31(22.1)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42(30.0)
	Aptitude and interest	48(34.3)
	Professional occupation	19(13.6)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action	20(14.3)
	Satisfaction	65(46.6)
	Moderate	48(34.3)
	dissatisfaction	5(3.6)
	very dissatisfaction	2(1.4)

3.2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Table 2. Degree of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N=140)			
Variables	Min	Max	M±SD
Social Support	2.52	5.00	3.86±.59
Emotional Support	2.33	5.00	3.92±.62
Material Support	2.00	5.00	3.73±.61
Appraisal Support	1.00	5.00	3.91±.71
Informational Support	2.60	5.00	3.86±.34
Positive Thinking	2.55	4.83	3.52±.61
Subjective Satisfaction	2.23	4.92	3.45±.54
Goal Pursuit	2.40	5.00	3.69±.58
Subjective Happiness	2.00	7.00	4.68±1.18
In general, happy	1	7	4.92±1.35
happier than my friends	1	7	4.68±1.37
enjoy life to the fullest	1	7	4.66±1.23
not depressed, but it doesn't seem very happy	1	7	4.46±1.39

하위영역별 평균은 정서적 지지3.92점, 물질적 지지 3.73점, 평가적지지 3.91점, 정보적지지 3.86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 3.52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은 주관적 만족 3.45점, 목표추구3.69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4.68점으로, 각 문항별 평균은 '일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4.92점, '내 친구들에 비해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4.68점, '매사 최대한 삶을 즐긴다' 4.66점, '우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행복한 것 같지도 않다' 4.4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21$, $p=.036$). 그 외 긍정적 사고와 주관적 행복감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은 성별 외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사회적 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사고($r=.48$, $p<.001$)와 주관적 행복감($r=.49$,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긍정적 사고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9$, $p<.001$)를 보였다(Table 4).

Table 4.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N=140)			
Variables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Subjective Happiness
	$r(p)$	$r(p)$	$r(p)$
Social Support	1		
Positive Thinking	.48(<.001)	1	
Subjective Happiness	.49(<.001)	.69(<.001)	1

Table 3.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Categories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Subjective Happin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62±.68	-2.121 (.036)	3.53±.51	.096 (.923)	4.50±.95	-.799 (.426)
	Female	3.91±.59		3.528±.50		4.72±1.22	
Age	19-29	3.91±.59	2.850 (.061)	3.54±.49	.948 (.390)	4.71±1.17	.696 (.500)
	30-39	3.47±.27		3.19±.17		4.00±.91	
	≥40	3.64±.61		3.49±.57		4.65±1.28	
Grade	2 grade	3.87±.68	.217 (.805)	3.45±.48	.782 (.460)	4.58±1.24	1.458 (.229)
	3 grade	3.82±.54		3.54±.52		4.73±1.17	
	4 grad	3.89±.55		3.58±.49		4.73±1.16	
Religion	Christian	3.92±.59	1.824 (1.46)	3.60±.59	1.852 (.141)	4.85±1.31	1.458 (.229)
	Catholic	3.77±.56		3.60±.51		4.74±1.20	
	Buddhism	4.14±.53		3.67±.426		5.07±1.13	
	No	3.79±.61		3.43±.45		4.50±1.12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Employment rate	3.88±.63	.466 (.706)	3.43±.57	1.268 (.288)	4.69±1.21	1.33 (.940)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3.93±.59		3.57±.57		4.65±1.33	
	Aptitude and interest	3.81±.59		3.58±.47		4.75±1.02	
	Professional occupation	3.77±.56		3.38±.43		4.55±1.25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action	3.71±.59	.703 (.591)	3.42±.43	2.168 (.076)	4.36±1.13	1.288 (.278)
	Satisfaction	3.86±.63		3.56±.80		4.81±1.23	
	Moderate	3.90±.54		3.60±.53		4.68±1.12	
	dissatisfaction	3.88±.74		3.10±.39		3.95±1.23	
	very dissatisfaction	4.34±.59		4.11±.31		5.50±1.06	

4. 고찰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3.8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한 Kwon, Jeong과 Seo[9]의 3.43점보다 높았고, Kim과 Jeon[11]의 3.95점 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수는 척도 평균 이상의 점수로 연구대상자들은 교수, 부모, 친구로부터 보통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상자들은 정서적 측면의 지지를 다른 지지보다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Yoo[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가장 낮게 인지하는 영역은 물질적 지지로,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정

도를 높이고 학과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영역의 속성들을 파악하여 학과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재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정도는 3.52점으로 Kim[8]의 3.42점보다 높고, Moon 등[23]의 3.5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사고는 행복을 경험하는데 요구되는 원천으로[23], 본 연구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하위영역의 정도는 주관적 만족3.45점, 목표추구 3.69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만족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스스로 긍정적으로 만족하고 긍정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교수진은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사고 향상을 통한 그들의 행복 추구, 더 나아가 간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학과특성을 반영한 관심과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4.68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Jo와 Park[10]의 3.72점, Kim[8]의

4.80점보다 높았고, Kim과 Jeon[11]의 5.0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행복감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Noh와 Lee[27], Sur와 Ahn[28]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습량,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고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29]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게 된다고 사료되므로 엄격한 학과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향후 간호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학과적응프로그램 등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Kwon, Jeong과 Seo[9], Kim과 Jeon[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ee와 Padilla[30]는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념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학생을 파악하여 지도 교수, 선배 등과의 주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지지체계를 확인하여 꾸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긍정적 사고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Kim[8], Jo와 Park[10]의 결과와 일치한다. Moon 등[2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사고는 만족하는 삶의 방향 설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 사고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사고 증진을 위한 영향요인 확인 및 이를 통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초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가 일개 지역 거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긍정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사고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A. Ahn, M. Y. Sim,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 No.10, pp.7021-7033, Oct,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0.7021>
- [2] M. H. Nam, M. R. Lee, "Factors influence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363-374, Oct,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0.363>
- [3] D. Flaming,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 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e Philosophy*, Vol.2, No.3, pp.251-258, Jan, 2004.
DOI: <https://doi.org/10.1046/j.1466-769x.2000.00066x>
- [4] J. I. Park, C. U. Park, H. J. Seo, Y. S. Youm,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4, No.2, pp.121-154, 2010.
UCI: 1410-ECN-0101-2010-331-003211797
- [5] H. S. Park, "Stress, yangs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471-481, Nov, 2014.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4.20.4.471>
- [6] K. H. Jo,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78-189, Aug, 2011.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1.17.2.178>
- [7] W. H. Jun, K. S. Cha, K. L. Le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76-284, May, 2015.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5.21.2.276>
- [8] S. O. Kim,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35-444, Dec,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35>
- [9] Y. C. Kwon, C. Y. Jeong, Y. S. Seo,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 pp.197-206, Jan,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97>
- [10] G. Y. Jo,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 pp.160-169, Nov, 201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 [11] J. H. Kim, H. 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2, pp.123-132, Jun, 2016.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123>
- [12] M. S. Jung, Y. S. Kang, M. H. Ko, D. H. Kim, S. Y. Kim, E. K. Kim, Nursing conceptual theory, Hyunmunsu, 2012.
- [13] S. E. Hobfoll,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6, No.4, pp.307-324, Dec, 2002.
DOI: <https://doi.org/10.1037/1089-2680.6.4.307>
- [14] J. G. Kim, H. S. Park, "The factor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pp.545-595, Apr, 2015.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6.22.2.182>
- [15] B. Montes-Berges, J. M. August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coping,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4, No.2, pp.163-171, Apr, 2007.
DOI: <https://doi.org/10.1111/j.1365-2850.2007.01059>
- [16] H. J. Kim, Y. H. Oh, G. S. Oh, D. W. Suh, Y. C. Shin, J. Y. Ju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1, No.4, pp.767-784, Dec, 2006.
UCI: I410-ECN-0102-2009-180-000272985
- [17] M. E. P. Seligman, M. Csikszentmihalyi,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5-14, Jan,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5>
- [18] R. G. Heimberg, M. C. Acerra, A. Holstein, "Partner similarity mediates interperson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9, pp.443-453, Aug, 1985.
DOI: <https://doi.org/10.1007/BF01173092>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0]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21] M. H. Je, "Social support, self-esteem of major effect on empowerment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22] I. J. Jeong, M. K. Park,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9, No.4, pp.333-341, Nov, 2020.
DOI: <http://doi.org/10.5807/kjohn.2020.29.4.333>
- [23] I. O. Moon, G. W. Lee, S. H. Jeong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s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1, pp.122-132, Jan, 2015.
DOI: <http://doi.org/10.1111/jkana.2015.21.1.122>
- [24] S. Lyubomirsky, H.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Feb, 1999.
DOI: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25] S. J. Han, H. W. Kim,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h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he giver, taker, matcher",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9, No.4, pp.461-467, Apr, 2018.
DOI: <http://doi.org/10.15207/JKCS.2018.9.4.461>
- [26] K. H. Yoo, "A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125-135, Feb, 2019.
DOI: <http://doi.org/10.5977/ikasne.2019.25.1.125>
- [27] J. H. Noh, M. G. Lee, "Why should I be thankful?: The effect of gratitude on well-being under the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0, No.1, pp.159-183, Feb, 2011.
DOI: <http://doi.org/10.15842/kjcp.2011.30.1.009>
- [28] H. N. Suh, H. Ahn, "The effect of ethic ident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ounselling*, Vol.11, No1, pp.1037-1052, Sep, 2010.
DOI: <http://doi.org/10.15703/kjc.11.3.201009.1037>
- [29] H. S. Cho,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ol.12, No1, pp.3-14 Jun, 2009.

UCI: I410-ECN-0102-2012-510-001105806

- [30] DS. Lee, AM. Padilla, "Predicting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through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38, No.1, pp.48-60, Dec, 2016.
DOI: <http://doi.org/10.1007/s10447-015-9255-2>

유 미 옥(Mi Ok Yu)

[정회원]



- 2012년 2월 :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10월 ~ 현재 :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소아청소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